

식품소비패턴의 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Food Consumption Pattern

김민아* · 김관수** · 안동환***

Kim, Minn-A · Kim, Kwan-Soo · An, Dong-Hwan

목 차

ABSTRACT

I. 서 론

II. 분석 방법 및 자료

III. 분석 결과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food consumption pattern of households by classifying consumer types using cluster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t model. As a result of classification analysis, this paper derived 6 types of food consumption patterns. Further, a multinomial logit approach is us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se consumption patterns.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food consumption patterns are found to be household income, household type, the age of head of household, car ownership and so on. The proposed results on food consumption patterns and their determining factors can be applied to build a effective marketing strategy such as sales strategy and management measures depending upon a classified target consumer group.

Key Words | food consumption pattern, classification, cluster analysis, multinomial logit

* 한국소비자원, 연구원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겸임연구원

***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부교수,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겸임연구원

I. 서 론

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은 가족원의 목표와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표현결과로 경제 및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정영숙, 1992). 소비생활에 대한 행위와 변화를 단순히 소비지출의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행동의 실태와 변화가 소득분포 및 취업구조, 교육수준 등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어떠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구 소비지출패턴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1).

따라서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유형화해 살펴봄으로써 현재 소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경제적 변수가 이러한 소비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가구의 소비에 대한 장단기 예측 및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식품산업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식품 소비 패턴을 분석한다. 먼저 가구단위에서의 식품 소비 행태의 유사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식품소비패턴의 유형화를 통해 식품소비에 있어서 어떠한 공통적인 패턴이나 행동 양식이 형성되는가를 규명한다. 그리고 개별가구의 어떠한 특성들이 이러한 식품소비패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든 식품류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유형화를 위해서는 군집분석, 그리고 유형화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적용한다.

식품소비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김성용(2010), 노호영·김성용(2009), 유소이(2005) 등을 중심으로 한 식품소비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와 전체 가구소비에서의 식품소비의 패턴을 분석한 정영숙(1992)과 손상희(1993), 한·중·일 청소년의 식품소비 추이를 비교분석한 이계임 외(2009) 및 한국인의 식품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연구(이계임 외, 2007) 등이 있다.¹⁾

먼저 식품소비의 다양성에 관한 김성용(2010), 노호영·김성용(2009), 유소이(2005) 등의 연구는 식품소비의 다양화지수를 추정하고 이러한 다양성의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고 있다. 정영숙(1992)과 손상희(1993)는 가구의 전체 소비 중에서 비목

1) 그 외에도 식품을 포함한 전체 소비의 패턴을 분석한 연구로 반정호·김경휘(2008), 이소정(2009)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 연구는 각각 근로빈곤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소비패턴을 군집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음.

별 비중을 통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식품소비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이계임 외(2009)의 연구는 국가간 식품소비 패턴 비교 연구로서 한·중·일 3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품류별 및 품목별 식품소비 추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주로 식품소비의 다양성이나 전체 소비에서 식품소비의 비중 등에 초점을 둔 연구로 가구의 식품류별 소비구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식품류별로 세분화된 식품소비 패턴에 대한 연구로는 이계임 외(200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계임 외(2007)에서는 식품소비지출 트렌드, 식품류별 소비행태, 영양소 섭취 및 식생활 트렌드 등 식품소비와 관련한 3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품류별 소비행태 분석을 위해 서울지역 거주 621가구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식품소비패턴 도출을 위해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서울지역 가구에 국한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며, 또한 식품류별 소비구조에 의한 가구의 유형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시도되지 않고 있다.

한편, 식품소비패턴에 대한 최근의 국외 연구로는 Hearty and Gibney(2009)와 Nakajima(2008) 등이 있다. Hearty and Gibney(2009)는 군집분석과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여 아일랜드 사람들의 식품섭취패턴을 비교하였으며, Nakajima(2008)는 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23개의 식품군에 대해 식품섭취패턴을 분석한 결과 4개 유형의 식품섭취패턴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 역시 식품소비패턴을 유형화하는데 그치고 식품소비패턴의 유형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선행연구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리고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가 활용할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설명과 식품소비패턴의 유형화와 결정요인분석에 사용될 군집분석 및 다항로지트모형에 대해 서술한 다음 Ⅲ장과 Ⅳ장에서는 위의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위에서 도출된 연구내용과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분석 방법 및 자료

1.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식품소비패턴의 유형화를 통해 개별 가구가 어떠한 식품소비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별하고 가구의 어떠한 속성이 그러한 유형화를 결정하는지를 두 단계에 걸쳐 분석한다. 먼저 개별 가구의 식료품별 지출액을 이용하여 식품소비패턴이 동질적인 집단을 분류하여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이용하여 식품소비패턴을 유형화한다. 다음으로 식품 소비패턴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모형을 이용한 계량 분석을 실시한다.

가. 군집분석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p(\geq 3)$ 개 변수 각각에 대하여 관측된 개체들을 군집의 개수와 구조에 아무런 가정 없이 자료의 유사한 정도인 근접성(proximity measure) 또는 거리에 근거하여 자연스러운 군집을 찾고, 자료에 대한 요약을 하는 탐색적인 통계 방법이다(유종영·이경미, 2003). 군집분석은 기본적으로 계층적(Hierarchical) 군집화 방법, 최적분할(partitioning) 방법, 클럼핑(Clumping) 군집화 방법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관찰치 수가 큰 경우에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인 최적분할(partitioning) 군집방법 중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식품소비 패턴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통상 K-평균법에 서 자료의 상호 연관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유클리드 거리를 적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angular방법을 이용해 군집화를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소비패턴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선 식(1)과 같이 각 소비자들의 소비품목들의 위치를 공간상의 벡터로 표현하였다. 일정 시점의 품목소비와 관련된 소비패턴을 k 개의 세부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면 R_+^k 차원의 공간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때 i 번째 품목을 포함하는 소비패턴을 다음과 같은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

$$f_i = (f_{i1}, \dots, f_{ik}) \dots \dots \dots (1)$$

이렇게 제시된 각 품목의 소비액에 angular 방식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의 유사성을 측정하면 식(2)와 같다.

$$w_{ij} = \frac{f_i \cdot f_j}{|f_i| \cdot |f_j|} \quad \dots\dots\dots (2)$$

이때 w_{ij} 는 k 차원의 공간상 두 벡터 f_i 와 f_j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곧 $w_{ij} = \cos \theta$ 가 된다. 이때 두 벡터가 직교 곧 상호 유사성이 없을 경우에는 w_{ij} 가 0에 가까워지며, 유사성이 클수록 1에 가까워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소비패턴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k -평균 군집분석에서 자료의 상호연관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angular방식을 사용하여 식품소비패턴을 유형화 하였다.

나. 다항로짓모형

다항로짓모형은 종속변인이 명목척도로서 3개 이상을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유용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법으로 위계와 순서를 가지지 않고 단순히 선호에 의해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모형이다(임병훈·안광호·하재은, 2005 ; Greene, 1998). 본 연구에서는 식품소비패턴을 유형화하여 그 유형을 1집단 2집단 등으로 나누어 선택의 범주가 2개 이상이고 위계와 순서가 아닌 선호에 의해서 선택 가능한 항목이므로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식품소비패턴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구체적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이항(Binomial)선택의 경우는 응답변수가 이항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본 모형이 도출된 반면, 다항로짓모형의 경우에는 응답변수가 다항분포(Multinomial Distribution)를 이루고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항 선택 상황의 연장선 상에서 다항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²⁾

$$Prob(y_i = 1) = \frac{Prob(y = 1)}{Prob(y = 1) + Prob(y = 0)} = F\left(\sum_{k=1}^K \beta_k x_k\right) \quad \dots\dots\dots (3)$$

2) 이성우 외, 2005, p.207.

여기서 $\text{Prob}(y=1) + \text{Prob}(y=0) = 1$ 이고, $\text{Prob}(y=0)$ 은 $\text{Prob}(y=1)$ 의 이항 선택 항의 확률로서 이항 선택항끼리는 서로 비교집단의 역할, 즉 참조집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식을 확장시켜 선택 범주가 J개인 식을 유도해 보면 다음과 같다(Maddala, 1983).

$$\frac{P_j}{P_J} = \frac{P_j}{1} = e^{\sum_{k=1}^K \beta_{jk} x_k} \dots\dots\dots (4)$$

$$1 + \sum_{j=1}^{J-1} e^{\sum_{k=1}^K \beta_{jk} x_k}$$

$$\text{Prob}(y=1) = \frac{e^{\sum_{k=1}^K \beta_{jk} x_k}}{1 + \sum_{j=1}^{J-1} e^{\sum_{k=1}^K \beta_{jk} x_k}} \dots\dots\dots (5)$$

위의 식은 선택의 범주가 J개인 다항로짓모형에서 j를 선택할 확률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식품소비패턴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할 확률식이 된다. 즉, 앞서 실시한 군집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식품패턴 유형을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각 세분화된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2.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06년 가계동향조사가 사용되었다.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시군의 동부 및 읍면부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999개 조사구에서 약 9,000가구(부적격가구 제외)를 추출하여 매월 실시되고 있다(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본 연구에서는 한 가구의 1개월간의 기록을 하나의 표본으로 간주하였다. 단, 2006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의 90,696개의 표본 중 중복 기재된 자료는 제외하였으며, 총 86,350개의 표본이 본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가계지출조사의 조사대상인 식료품의 항목을 32개 품목으로 재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이름과 성격, 그리고 기초통계량은 <표 1>과 같다.

가구당 연간 식료품비 지출액은 최소 0원에서 최대 약 800만 원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가구소득은 최소 0원에서 최대 약 1억 2,000만 원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식품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특성 변수로는 소득, 가구원수, 배우자유무, 가구주(배우자) 성별, 가구주(배우자) 나이, 가구주(배우자) 교육수준, 가구원의 나이, 가구유형,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이 고려되었다. 여기서 가구유형은 노인가구(18세 미만 가구원과 65세 가구원 0, 모자가구(18세 미만 미혼자녀와 엄마), 맞벌이가구, 일반가구(그 외 기타 가구)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으로 부터 도출된 군집유형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한다.

〈표 1〉 기초 통계량

변수명		최소값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식료품비 지출액		0	489,482	302,017	8,005,930
가구소득		0	3,263,538	2,525,418	126,400,000
가구원수		1	2.949	1.276	10
배우자유무 ¹⁾		1	1.549	0.858	2
가구주 성별 ²⁾		1	1.266	0.442	2
가구주 나이		15	48.238	13.528	97
배우자 나이		0	31.069	22.867	92
가구원1 나이		0	19.223	16.982	99
가구원2 나이		0	15.323	15.976	96
가구유형 ³⁾	노인가구	0	0.101	0.301	1
	모자가구	0	0.034	0.183	1
	맞벌이가구	0	0.224	0.417	1
자동차소유		0	0.692	0.625	3

주 : 1) 배우자 있음 = 1, 배우자 없음 = 3

2) 남자 = 1, 여자 = 2

3) 노인가구 18세미만 가구원과 65세 가구원 = 1, 모자가구(엄마 + 18세 미만 미혼자녀) = 2
맞벌이가구(가구주 + 배우자가 취업) = 3, 일반가구(그 외 기타가구) = 4

Ⅲ. 분석 결과

1. 식품소비패턴의 유형화

가구의 식품소비패턴에 내재한 구조유형을 파악하기위해 본 논문에서는 32개 식품류별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식품소비패턴에 따라 전체 가구가 5~8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하지만 5개의 유형으로 나눌 경우 전체 가구원의 약 50%가 한 군집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한편, 8개의 유형으로 나눈 군집 분석 결과에는 단 1,703가구(전체 가구원 중 약 2%에 해당)만 속하는 과소군집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달리 6개 또는 7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러한 과대군집이나 과소군집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각 식품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변량분산분석(MANOVA) 결과 F값이 유의 확률 0.00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참조).

<표 2> K-평균법에 의한 군집화 결과

구 분	5개의 유형으로 나눈 군집	6개의 유형으로 나눈 군집	7개의 유형으로 나눈 군집	8개의 유형으로 나눈 군집
1	15,453 가구	7,718 가구	15,904 가구	6,083 가구
2	6,729 가구	11,361 가구	7,583 가구	7,234 가구
3	41,182 가구	15,966 가구	31,087 가구	14,606 가구
4	14,197 가구	13,020 가구	3,916 가구	5,785 가구
5	8,789 가구	32,121 가구	5,742 가구	26,311 가구
6	-	6,164 가구	12,868 가구	10,682 가구
7	-	-	9,250 가구	1,703 가구
8	-	-	-	13,946 가구

본 연구에서는 두 유형 중에서 F값이 큰 것으로 나타난 6개 유형의 군집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³⁾ 이렇게 군집을 6개의 유형으로 나눌 경우, I 군집에는 7,718가구,

3) 이는 F값은 집단 간 분산/ 집단 내 분산으로 F값이 크면 클수록 집단 간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궁근(2009)참조.

Ⅱ 군집은 11,361가구, Ⅲ군집은 15,966가구, Ⅳ군집은 13,020가구, Ⅴ 군집은 32,121가구, Ⅵ 군집은 6,164가구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식품소비패턴에 따른 가구 유형별 식품류별 지출액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군집분석결과

식 품	Ⅰ 군집		Ⅱ 군집		Ⅲ 군집		Ⅳ 군집		Ⅴ 군집		Ⅵ 군집		전 체 평 균
	성장기 자녀위주 유형		건강지향 유형		자녀 및 건강 지향 혼합 유형		외식 중심 유형		외식 및 간편식 중심형		전통식 유형		
	n=7718		n=11361		n=15966		n=13020		n=32121		n=6164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식료품비	500,163	216201	344,153	312244	510,188	297092	595,573	294685	515,099	300165	332,750	257166	489,482
쌀	20,598	27883	10,027	21445	19,629	29185	16,680	27430	14,606	25748	*88,296	98846	21,041
기타곡물	3,671	9807	7,418	20236	6,356	16806	4,185	12220	3,237	9895	*8,812	23269	4,944
식빵 및 떡	4,369	7979	5,513	16823	*6,564	13084	4,044	9474	3,655	9766	3,309	7924	4,535
곡물가공품	3,385	7029	3,239	10934	*4,216	18353	3,216	9315	2,869	10834	2,306	6622	3,225
면류	*6,908	7204	2,982	5275	5,136	6578	5,433	6518	5,078	6418	3,997	6015	4,953
소고기	11,431	22503	*25,819	52805	*26,707	45626	13,653	28237	8,912	20205	9,897	22443	15,437
돼지고기	*17,989	19789	13,006	22469	*18,059	22273	13,964	18351	11,705	16284	11,692	16857	13,952
닭고기	2,721	5055	2,068	5182	2,777	5650	2,252	5036	1,976	4665	1,987	4523	2,245
육류가공품	*8,524	11837	3,371	9445	6,949	15104	6,372	10818	6,133	12702	3,575	11815	5,988
우유	3,829	15819	5,859	10318	*11,337	15107	10,353	14575	9,683	13535	6,265	11223	9,713
기타낙농품	595	2170	284	1909	*733	2794	585	2090	558	2178	274	1709	541
달걀 및 달걀가공품	*4,185	4104	2,661	4410	3,920	4485	3,371	3848	3,010	3684	2,638	3473	3,265
선어개류	15,287	21092	*36,598	54960	31,575	42920	18,571	27839	12,397	20579	15,300	23409	20,523
염건어개류	4,059	8489	6,457	18534	7,088	15673	4,719	11905	3,538	8684	4,015	9175	4,837
어개가공품	6,602	8702	5,447	11197	*7,263	10915	5,797	8664	5,007	8322	4,505	8452	5,708
해조 및 해조가공품	3,809	5193	3,782	7744	4,735	8020	3,470	5669	2,934	5569	3,221	5656	3,558
채소	27,319	22154	*35,553	37488	*36,326	29804	24,748	23225	19,446	19049	25,665	25104	26,633
두부	2,413	2798	1,984	4053	*2,745	3482	2,171	2844	1,883	2704	1,812	3066	2,141
김치류	4,697	16964	2,504	10271	*3,954	14431	3,831	14100	3,986	14248	*4,917	17675	3,892
기타채소가공품	*1,255	3283	700	2797	1,100	3193	917	2732	827	2702	815	5537	912
과실	*27,435	26400	*38,809	47569	*49,823	45109	*26,385	28379	22,473	24547	20,708	26367	30,587
과실가공품	838	2929	1,545	7307	1,768	7238	1,045	5155	835	3651	729	3664	1,125

식 품	Ⅰ 군집		Ⅱ 군집		Ⅲ 군집		Ⅳ 군집		Ⅴ 군집		Ⅵ 군집		전 체 평 균
	성장기 자녀위주 유형		건강지향 유형		자녀 및 건강 지향 혼합 유형		외식 중심 유형		외식 및 간편식 중심형		전통식 유형		
	n=7718		n=11361		n=15966		n=13020		n=32121		n=6164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유지 및 조미료	14,140	22584	*33,513	69760	21,915	36764	13,295	23559	9,736	18774	16,075	30531	16,499
빵 및 과자류	*28,362	21718	10,422	15467	22,681	23234	20,213	20587	20,532	20513	11,311	15208	19,593
저칼로리음료	5,886	10799	4,434	9473	7,440	12888	6,673	11247	6,528	11051	4,364	8783	6,231
고칼로리음료	*8,873	13868	4,437	10865	8,532	14639	8,020	12282	7,946	12606	4,685	11131	7,454
주류	5,145	12856	6,684	18669	9,371	32522	8,060	17367	6,553	15336	4,937	12897	7,077
건강식품	4,392	26689	22,101	112355	4,298	27227	5,917	36256	5,129	32465	1,962	14651	7,035
식사대	*113,212	74547	24,489	40381	*134,729	88110	*174,868	110882	*254,786	177753	37,847	53459	162,098
학교급식대	*90,947	46169	3,545	14895	6,525	17776	13,678	28568	11,619	25671	7,001	20582	16,686
음주대	20,819	33669	6,645	21728	18,512	31360	*153,479	111855	31,650	43623	8,580	23171	41,686
기타외식	581	6770	229	5173	425	6513	340	5238	461	6423	283	4707	403

* : 그룹내 상위수준, # : 타 군집에 비해 상위수준

먼저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 지출액은 489,482원으로 소득의 약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료품 지출액 중 품목별 비중을 보면 식사대가 33.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주대가 8.52%, 과실이 6.25%, 채소가 5.44%, 쌀이 4.3%, 선어개류가 4.19%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형별 식품소비 패턴을 살펴보면, I 군집의 경우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은 500,163원으로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 군집의 경우 식사대가 월 평균 113,211원으로 가장 큰 비중(22.64%)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평균(33.12%)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와 달리 학교 급식대는 약 90,947원으로 다른 군집에 비해 특히 높은 비중 (18.1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타 군집들에 비해 빵 및 과자류, 돼지고기, 육류가공품, 면류, 고칼로리음료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 군집은 성장기에 있는 가구원 중심의 식품 소비유형으로 상대적으로 성장기의 청소년 및 유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류와 고단백 위주의 식품 소비가 많은 가구 유형으로 볼 수 있다.

II 군집은 월평균 식료품 지출액이 344,153원으로 6개 그룹 중 2번째로 낮은 그룹으로 외식에 대한 소비 지출은 낮고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가 많은 특징을 가진다. 즉, II 군집에

속한 가구는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쌀, 찹쌀, 보리쌀, 두류 등 기타곡물, 선어개류, 채소, 과일, 유지 및 조미료, 돼지고기, 소고기, 건강식품 등에 대한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식사대의 비중은 7.12%로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인다. 특히 Ⅱ군집의 건강식품 지출액은 22,101원으로 Ⅵ군집(1,962원)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Ⅱ군집에 속하는 유형의 가구들은 건강식품을 포함하여 채소나 과일 등 건강 지향의 식품 소비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군집의 경우 Ⅱ군집에서 많이 소비하는 채소와 과일, 육류 등과 Ⅰ군집의 주요 소비 식품인 쌀, 선어개류, 채소, 과일과 빵 및 과자류 등에 대한 지출이 모두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Ⅲ군집의 경우 Ⅰ군집과 Ⅱ군집의 식품소비패턴의 혼합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Ⅲ군집에 속하는 표본은 전체의 18.5%로 Ⅴ군집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품소비패턴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군집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3,602,770원으로 가장 높은 그룹이며, 소득 중 식료품비 지출 비중도 16.5%로 가장 높다. Ⅳ군집 유형의 가구는 외식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음주대의 비중이 25.77%로 매우 높다는 점이 특징이며, 식사대와 음주대를 포함한 전체 외식비 지출(306,958원)이 전체 식품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로 가장 높은 유형이다.

Ⅴ군집 역시 외식비 지출이 높은 유형이지만 Ⅳ군집과는 달리 식사대 지출이 외식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식사대가 전체 식품지출의 49.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Ⅴ군집은 6개의 군집 중에서 전체 표본의 37.2%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32,121 가구가 포함되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식품소비패턴 유형으로 나타났다.

Ⅳ군집과 Ⅴ군집의 경우 높은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류나 채소 및 과일 등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두 그룹에 속한 가구의 경우 이러한 식품을 직접 구입하여 소비하기보다는 주로 외식을 통해 섭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Ⅵ군집은 월평균소득이 2,195,530원으로 가장 낮은 그룹으로, 전체 표본 중 6,164가구가 이 유형에 속하여 가장 구성비(7%)가 낮다. Ⅵ군집의 경우 쌀에 대한 지출액 비중(26.5%)이 가장 높고 그 외에도 기타 곡물과 김치류에 대한 소비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식에 대한 지출은 낮은 수준으로 식사대의 비중이 11.37%로 전체 그룹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쌀, 기타 곡물, 김치류 위주의 식품소비 패턴을 보이는 Ⅵ군집의 경우 비교적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생활과 가장 가까운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군집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식품소비패턴을 다음과 같은 6개의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Ⅰ군집은 급식, 빵 및 과자류, 육류가공품 등 주로 성장기 유·청소년을 위한 식품에 대한 지출이 많고(성장기 자녀위주형), 제Ⅱ군집은 채소와 과일, 선어개류 그리고 건강식품 등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 유형(건강지향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제Ⅲ군집은 빵 및 과자류와 육류가공품과 같이 Ⅰ군집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품목과 채소와 과일, 소고기 등 Ⅱ군집에서 많이 소비되는 품목이 혼합되어 있는 식품유형(자녀 및 건강지향 혼합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평균소득이 높은 그룹인 Ⅳ군집과 Ⅴ군집은 식사대와 음주대 지출이 많고 가공식품과 같은 간편식에 대한 소비가 많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Ⅳ군집은 상대적으로 음주대에 대한 지출이 많고 식사대를 포함한 전체 외식 소비가 가장 많은 유형(외식중심유형)이며, Ⅴ군집은 식사대의 지출이 가장 많고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도 상대적으로 많은 유형(외식 및 간편식 중심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Ⅵ군집은 외식 소비가 적고 쌀과 기타곡물 및 김치 등에 대한 소비가 많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식품소비 유형(전통식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4>는 군집분석 결과 나타난 식품 소비패턴 유형별로 가구의 주요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표 4> 식품소비패턴 유형별 주요 가구 특성

구 분	Ⅰ군집	Ⅱ군집	Ⅲ군집	Ⅳ군집	Ⅴ군집	Ⅵ군집
	성장기 자녀위주 유형	건강지향 유형	자녀 및 건강 지향 혼합 유형	외식 중심 유형	외식 및 간편식 중심형	전통식 유형
가구소득(원)	3,114,045	2,413,967	3,333,408	3,602,770	3,349,743	2,195,530
식료품지출(원)	500,163	344,152	510,188	595,573	515,099	332,750
소득 중 식료품 지출 비중(%)	16.1	14.3	15.3	16.5	15.4	15.2
가구원수(명)	3.89	2.10	2.99	3.17	3.00	2.49
가구주 나이(세)	43.36	61.05	49.03	44.72	44.21	57.09
가구원1 나이	15.16	27.06	20.13	20.25	17.74	23.96

주 : 노인가구 18세미만 가구원과 65세 가구원=1, 모자가구 : 엄마+18세 미만 미혼자녀=2,
맞벌이가구 : 가구주+배우자가 취업=3, 일반가구 : 그 외 기타가구=4

먼저,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Ⅳ군집이 3,602천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Ⅴ군집과 Ⅲ군집의 평균 소득이 각각 3,349천 원, 3,333천 원이며, 가장 소득이 낮은 그룹은 Ⅵ그룹(2,196천 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외식에 대한 소비 지출이 많고 소득

이 낮을수록 외식 비중이 낮고 전통적 식품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 대비 식료품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중은 소득이 가장 높고 외식 비중이 높은 IV그룹(16.5%)과 성장기 자녀 위주의 식품 소비를 하는 I그룹(16.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가구원 수, 가구주의 나이,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의 나이 등과 같은 주요 가구 특성 역시 이러한 식품소비패턴의 유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면, I군집의 경우 가구원이 가장 많고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 중 연장자인 가구원 1의 나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그룹에 비해 성장기 자녀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건강지향 유형인 II군집의 경우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아 이러한 건강 위주의 식품소비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II군집과 함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구주 연령이 높은 VI군집의 경우 쌀, 김치류 등의 소비가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식품소비패턴 유형별로 주요 가구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유형화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2. 식품 소비패턴 결정요인

<표 5>는 가구의 식품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여섯 군집 가운데 가장 많은 가구원이 포함된 제V군집을 기준 군집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다섯 군집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가구의 식품소비패턴 유형을 결정짓는 가구 특성으로 소득과 가구원의 구성 및 특성, 교육수준, 가구유형 등을 고려하였다.

먼저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I, II, VI군집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반면, II, IV군집의 경우 V군집과 비교하여 소득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외식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의 소비지출구조에서 전체적인 식료품비 지출은 감소하였으나 외식의 비중은 증가하며 외식에 대한 지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술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가구 유형이 식품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경우 I군집에 속할 확률은 낮고 II군집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군집의 경우 V군집과 비교하여 그 영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지향적인 식품소비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외식 중심 유형에 속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식품 소비패턴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변 수	I 군집		II 군집		III 군집		IV 군집		VI 군집	
	성장기 자녀위주 유형		건강지향 유형		자녀 및 건강 지향 혼합 유형		외식 중심 유형		전통식 유형	
	Coef.	exp(β)	Coef.	exp(β)	Coef.	exp(β)	Coef.	exp(β)	Coef.	exp(β)
소 득	-0.189 (0.013)***	0.827	-0.037 (0.022)*	0.963	-0.009 (0.009)	0.991	0.005 (0.008)	1.005	-0.240 (0.029)*	0.787
노인가구	-1.473 (0.772)*	0.229	0.859 (0.494)*	2.360	-31.135 (1897307.)	0.000	-30.913 (1970771.)	0.000	0.338 (0.610)	1.402
모자가구	1.700 (0.112)***	5.475	0.959 (0.207)***	2.610	0.513 (0.136)***	1.671	-1.216 (0.354)***	0.296	0.821 (0.212)*	2.274
맞벌이가구	0.063 (0.044)	1.065	-0.794 (0.100)***	0.452	-0.692 (0.043)***	0.501	-0.470 (0.043)***	0.625	-0.556 (0.092)*	0.574
가구원수	0.358 (0.033)***	1.431	0.129 (0.066)*	1.138	0.084 (0.033)**	1.087	-0.023 (0.035)	0.977	0.331 (0.058)*	1.392
배우자유무	0.056 (0.104)	1.058	0.318 (1.374)*	1.374	-0.281 (0.110)**	0.755	0.176 (0.146)	1.193	-0.098 (0.186)	0.906
가구주성별	0.060 (0.071)	1.062	-0.222 (0.801)*	0.801	-0.524 (0.072)***	0.592	-1.293 (0.088)***	0.274	-0.383 (0.123)*	0.682
가구주나이	0.031 (0.004)***	1.032	0.030 (1.030)***	1.030	0.006 (0.003)*	1.006	-0.006 (0.004)	0.994	0.007 (0.007)	1.007
가구주교육수준	0.133 (0.021)***	1.142	0.089 (1.094)**	1.094	0.087 (0.019)***	1.091	0.026 (0.020)	1.026	-0.020 (0.040)	0.981
배우자나이	-0.003 (0.003)	0.997	0.007 (1.007)	1.007	-0.001 (0.003)	0.999	0.007 (0.003)**	1.007	0.000 (0.005)	1.000
배우자교육수준	0.025 (0.024)	1.025	-0.059 (0.942)	0.942	-0.002 (0.023)	0.998	-0.032 (0.024)	0.968	-0.016 (0.047)	0.984
가구원1나이	-0.007 (0.002)***	0.993	-0.001 (0.999)	0.999	0.003 (0.002)	1.003	0.008 (0.002)***	1.008	0.000 (0.003)	1.000
가구원2나이	-0.009 (0.002)***	0.991	0.008 (1.008)***	1.008	0.006 (0.001)***	1.006	0.005 (0.001)***	1.005	0.008 (0.003)*	1.008
자동차소유여부	-0.222 (0.040)***	0.801	-0.450 (0.078)***	0.638	-0.154 (0.037)***	0.857	0.097 (0.038)**	1.102	-0.516 (0.077)*	0.597
상수항	-3.248 (0.215)***	0.039	-4.202 (0.416)***	0.015	-1.387 (0.206)***	0.250	-0.838 (0.216)***	0.433	-2.768 (0.395)	0.063

주 : 1) ***1%(p<0.01), **5%(p<0.05), *10%(p<0.1) 이내 유의함.

2) ()내는 표준편차

한편 모자가구의 경우 V군집과 비교하여 IV군집에 속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그 외 다른 군집에 속할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자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식 중심의 식품소비패턴을 보일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맛별이가구의 경우 I군집을 제외한 모든 가구 유형에서 V군집에 속할 확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맛별이 가구일수록 외식 및 간편식 중심이고 음주와 관련한 지출이 많은 식품소비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I, II, VI군집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여,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외식이나 간편식품의 소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II군집에 속할 확률은 증가하는 반면 III군집에 속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주의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I, II, III군집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식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배우자의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식품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가구원의 연령이 높을수록 I그룹에 속할 확률은 낮은 반면 IV군집에 속할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유는 외식 중심인 IV, V군집에 비해 다른 군집에 속할 확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구 특성에 따른 식품소비패턴의 유형화와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의 식품류별 소비 지출액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가구의 식품소비패턴을 유형화하고 다항로지분석을 통해 식품소비패턴 유형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식품소비패턴의 유형화 결과 성장기 자녀위주의 식품소비 유형, 건강지향적인 식품소비 유형, 자녀위주 및 건강지향의 혼합 유형, 외식중심 유형, 외식 및 간편식 중심형, 그리고 전통적 식품소비 유형 등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화 결과 외식 및 간편식 중심의

식품소비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쌀, 김치 등의 소비 비중이 높은 전통적 식품소비 유형에 속하는 가구의 전체가구 대비 구성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식품소비패턴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결과 소득, 가구원의 구성, 가구의 유형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식품소비패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외식 중심의 식품소비패턴을 보일 확률이 높은 반면, 모자가구나 노인가구일수록 외식 비중이 낮은 식품소비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맛별일 가구의 경우 외식 및 간편식 중심이며 음주와 관련한 지출인 많은 식품소비패턴을 보이며, 노인가구 및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 지향적인 식품소비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외식이나 간편식품의 소비가 적고, 가구주의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식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일수록 외식과 관련한 지출이 많은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식품산업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소득 증가와 맛별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외식과 관련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외식은 영양섭취보다는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레저의 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식의 유형이나 패턴에 대한 보다 엄밀한 연구와 외식산업의 성장을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쌀과 김치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전통적 식품소비패턴을 보이는 유형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형에서 빵이나 과자류의 소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통적 식품소비패턴을 보이는 가구에 대한 보다 엄밀한 연구를 통한 전통적 식품 소비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전통식품의 외식 및 간편식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식품소비패턴의 유형별로 식품산업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품소비패턴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미시적인 분석을 통한 제품개발의 방향과 차별화된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향후 후속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2006년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최신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함께 시간에 따른 식품소비패턴 유형의 변화와 그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식품소비패턴에만 국한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구의 다른 소

비지출과의 연관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식품소비지출패턴과 다른 부문 소비지출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도 향후 연구 과제의 하나가 된다.

셋째, 지역 간 식품소비지출에서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의미 있는 향후 연구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지역 간 식품소비패턴의 차이에 대한 분석 역시 식품 산업의 발전 전략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외식 중심의 식품소비패턴을 보이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외식소비지출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연구도 중요한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기영·전명식, 『다변량 통계자료 분석』, 자유아카데미, 1997.
- 김성용·노호영, “식품소비의 다양성 변화 분석”, 『식품유통연구』 제25권 4호, 2008.
- 김성용·이계임, “도시가구의 식품비 지출에 대한 연령-세대-연도효과분석”, 『농업경제연구』 제49권 4호, 2008.
- 남궁근, 『도시별 에너지 소비특성에 따른 도시정책방향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 노호영·김성용, “다년간 가계지출자료에 의한 식품소비의 다양성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0권 2호, 2009.
- 반정호·김경휘,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특성과 소비패턴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제24권 3호, 2008.
- 손상희, “가계소비패턴의 구조”, 『소비자학연구』 제4권 2호, 1993.
- 손승철, 『식품소비의 구조적 변화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1.
- 유성모, 『SAS 다변량 통계분석』, 자유아카데미, 2000.
- 유소이, “도시가계의 식품소비 다양성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제8권 2호, 2005.
- 이계임·이용선·전형진·주현정, “한·중·일 청소년의 식품소비 추이 비교분석”, 『농촌경제연구』 제32권 1호, 2009.
- 이계임·한혜성·손은영, 『한국인의 식품소비 트렌드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2007.

- 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박문사, 2005.
- 이소정, “저소득 가구의 소비패턴과 경제적 복지의 안정성”, 『사회보장연구』 제25권 3호, 2009.
- 성웅현, 『응용 다변량 분석 : 이론, 방법론, SAS활용』, 탐진, 2002.
- 정영숙, “가계의 소비지출 패턴-대구·경북 지역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3권 2호, 1992.
- 최용석·정광모, 『(SAS를 활용한)다변량 분석 기법과 응용』, 자유아카데미, 2006.
- Aine P. Hearty and Michael J. Gibney, “Comparison of Cluster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echniques to Derive Dietary Patterns in Irish Adults”, *British Journal of Nutrition*, Vol. 101, 2009.
- Andrea Nesbitt et al., “Food Consumption Patterns in the Waterloo Region, Ontario, Canada : A Cross-sectional Telephone Survey”, *BMC Public Health*, 2008.
- A. Turrini, A. Saba, D. Perrone, E. Cialfa and A. D’Amicis, “Original Communication Food Consumption Patterns in Italy : the INN-CA Study 1994-1996”,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Vol. 55, 2001.
- Daniela Hupkova, Peter Bielik, “Changing Food Consumption Patterns –The Case of Meat Consumption in Slovakia”, *Delhi Business Review*, Vol. 11, 2010.
- 中島 順一, “クラスター分析による食物摂取パターン分析”, 岐阜市立女子短期大学研究紀要第57輯, 2008.

- 원고접수일 : 2011년 05월 30일
- 1차 수정일 : 2011년 07월 23일
- 2차 수정일 : 2011년 09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09월 26일

■ 부록 : 분산분석 결과 ■

구 분	6개의 유형		비 교	7개의 유형	
	F 값	유의확률		F 값	유의확률
쌀	4590.44	<.0001	>	3819.25	<.0001
기타곡물	289.38	"	>	242.58	"
식빵 및 떡	178.15	"	<	211.49	"
곡물가공품	35.34	"	<	28.94	"
면류	410.09	"	>	340.48	"
소고기	900.3	"	<	5853.08	"
돼지고기	330.08	"	>	298.43	"
닭고기	74.57	"	>	71.45	"
육류가공품	234.48	"	>	206.75	"
우유	447.65	"	>	378.99	"
기타낙농품	73.97	"	>	64.5	"
달걀 및 달걀가공품	278.69	"	>	249.48	"
선어개류	1362.83	"	>	1125.55	"
염건어개류	228.17	"	>	208.36	"
어개가공품	160.87	"	>	137.78	"
해조 및 해조가공품	1258.99	"	>	1152.83	"
채소	195.19	"	>	183.32	"
두부	32.79	"	>	27.04	"
김치류	45.94	"	>	37.4	"
기타채소가공품	178.48	"	>	173.29	"
과실	1714.33	"	<	1510.3	"
과실가공품	94.86	"	>	127.73	"
유지 및 조미료	887.93	"	<	1180.01	"
빵 및 과자류	1051.31	"	>	912.66	"
저칼로리음료	142.81	"	>	123.94	"
고칼로리음료	241.22	"	>	202.55	"
주류	81.87	"	>	71.24	"
건강식품	246.74	"	>	8.62	"
식사대	7754.9	"	>	6536.52	"
학교급식대	14098.3	"	>	11686.6	"
음주대	13337.5	"	>	11106.1	"
기타외식	4.63	"	>	3.78	"